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실태 연구

윤민우*

〈요 약〉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역사와 최근의 인도네시아의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 실태를 조사한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 문헌조사와 관련자들의 질적 인터뷰를 병행한다. 문헌조사를 위해서는 미디어 보도, 관련 연구 보고서와 논문 등을 수집하고 활용한다. 질적 인터뷰를 위해서는 국내체류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체류자들,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들 등을 포함한다. 이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는 30분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의 모집단을 사실상 특정화 할 수 없으며 연구주체의 성격상 인터뷰 대상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 샘플과 눈덩이 샘플 추출 방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는 뿌리가 깊고 일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이 이슬람 극단주의가 공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 즉,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슬람 원리주의가 시작되었으며, 독립이후 근대국가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었고 소련-아프간 전쟁을 거치며 극단화 폭력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9.11테러 이후 국제적 이슬람 극단주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글로벌 지하드에 편입되는 발전경로를 보여준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 궤적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공고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최근 들어 IS와 알카에다 등의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동아시아 확장전략에 따라 인도네시아로의 침투와 확장이 관찰된다. 이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소외되고 낙후한 시골지역에서 보다 뚜렷이 관찰된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에서의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은 지리적 근접성, 국내 상당규모의 이주자 공동체의 존재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우리 국가에 위협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동향에 대한 주의와 관심은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테러리즘, 테러, 이슬람 극단주의, 인도네시아, 이주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부교수 (제1저자)

목 차
I. 머리말 II. 인도네시아 이슬람, 이슬람 극단주의 III. 논의

I. 머리말

지난 2015년 11월 18일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연계단체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는 국내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인이 검거됐다(김정우, 2015). 국내에서는 국제테러조직을 추종하는 자가 검거된 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공격의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대두되었다. 특히 이 사건은 2015년 11월 13일 파리에서의 IS 연쇄테러 직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국내에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에서 체포된 인도네시아인 남성은 32세로 일반적으로 외로운 늑대형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용의자가 보여주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 인도네시아인은 8년간 국내에 체류하여 한국사회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으며, 검거되기 직전 최근 몇 달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단체인 알 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가 있었다. 또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폭력과 무기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도 보여주었는데 이 인도네시아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이 흉기인 ‘보위 나이프’ 1점과 모형 M16 소총 1정을 발견한 것에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또 다른 특징인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관심과 학습은 함께 발견된 다수의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징후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테러공격에 가담했던 외로운 늑대형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에서 나타났던 그것들과 유사하다.

검거된 이 인도네시아 인의 말과 행동 역시도 이 인도네시아 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지지하며 잠재적으로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 인도네시아 남성은 시차를 두고 적어도 두 번의 구체적인 이슬람 테러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4월 북한산 산행을 하던 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흔들며 이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시 6개월 뒤에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알 누스라 전선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같은 성격의 테러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은 이 남성의 극단주의 테러지지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속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욱이 이 남성은 SNS에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한 애도 물결이 일어난 것에 “40만 명의 시리아 민간인이 사망했는데도 무반응인 반면 누구의 소행인지 특정되지 않았는데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처사”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반면 최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레반 전 지도자인 몰라 무하마드 오마르에게는 애도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언어적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극단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인도네시아 남성의 경찰 진술 역시 이 남성의 이슬람 극단주의 지지성향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IS에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 알 누스라 전선을 더 옹호하고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이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던 인도네시아 남성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국내에서 감행하거나 또는 시리아의 테러세력에 가담할 수 있는 잠재적 성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대체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나타나는 외로운 늑대형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용의자들 또는 해외테러세력 가담자들은 몇 가지 주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것들은 해당 사회에 대한 익숙함, 폭력과 무기에 대한 호감,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관심과 학습,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을 지지하는 현실공간 또는 가상공간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표현, 그리고 서방사회에 대한 반감 등이다. 이 인도네시아 남성 사건에서는 그러한 주요 특징들이 두루 포착되었다. 때문에 이 남성이 적어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대한 지지자이며 실제 테러공격 또는 테러세력 가담을 실행할 수도 있는 테러리스트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여러 무슬림 가운데서도 이 인도네시아 남성이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이

슬람 극단화 여부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수니 이슬람 국가이며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 가까운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내에도 상당한 규모의 인도네시아 이주민 무슬림 공동체가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화 여부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 5천만 가운데 80퍼센트 정도가 무슬림인 세계최대의 무슬림 국가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다수의 국내 체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 2013). 이런 맥락에서 현재 국내에서 형성된 주요한 무슬림 공동체 가운데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본국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경향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최근 들어 IS(Islamic State) 등의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을 기도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주요한 이슬람 극단주의 동아시아 거점으로 삼고자 기도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된다. 역내 당국과 테러리즘 전문가들에 따르면, IS는 인도네시아를 자신들의 세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역내에 전투적인 이슬람 극단주의를 확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약 300명에서 700명 사이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지난 2년간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IS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최근의 IS가 공개한 이슬람 극단주의 선동 동영상에 두 차례나 인도네시아인들이 등장하였으며 30여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조직들이 IS에 충성을 맹세하였고 그 가운데 몇몇은 동남아시아에 공식적인 IS의 한 지방(a province)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했다(BBC, 2016). IS의 동아시아에 대한 확산노력은 또 다른 보도에서도 드러난다. 2016년 8월 22일자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IS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무슬림 어린이들을 집단적, 조직적으로 IS 전사로 양성하고 있다. IS는 이들 어린이들이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칼리프의 왕자들’이라고 치켜세우며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 역시 IS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연합뉴스, 2016). 또 다른 보도(Harson, 2015) 역시 인도네시아에 대한 IS의 영향력 확산을 보여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IS에 직접 가담하거나 IS를 지지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치법률협력부 장관(Indonesian coordinating minister for political and legal affairs)의 최근 발표에 따르

면 800여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IS에 가담했으며 이 가운데 100여명이 본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리즘 전문가인 Sidney Jones는 인도네시아의 IS 가담 인원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중 있는 실제 행동을 아직까지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새로운 지하디스트들을 길러내고 테러리즘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은 인도네시아 내에 충분히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IS는 더욱이 인도네시아 내에 정부기관으로도 침투할 수 있는 루트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FDI Feature Interview, (2016). 한 보고서에 따르면, IS 지하디스트들은 인도네시아에 칼리프국가 를 수립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최근의 여러 징후들은 인도네시아에서의 IS 등의 이슬람 극단주의의 전파와 확산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Tomsa, 2016). 한편 인터뷰를 수행한 국내 한 이슬람 지역 선교단체 활동가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개인수술관련 의료선교를 하는 의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하였는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씨클 내에서 선정되었다고 알려졌다(한국인 기독교 선교단체 활동가와의 인터뷰 자료).

이 연구는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 실태 를 조사한 것이다.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지지자의 국내 출현과 국내에서의 인도네시아 무슬림 커뮤니티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동향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인식에 기반 한다. 이 연구는 국내의 인도네시아 무슬림 커뮤니티의 존재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이 유럽의 경우처럼 자생적 이슬람 극단주의 형태로 우리 사회 내부로도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최근 실태를 진단해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 문헌조사와 관련자들의 질적 인터뷰를 병행한다. 문헌조사를 위해서는 미디어 보도, 관련 연구 보고서와 논문 등을 수집하고 활용한다. 질적 인터뷰를 위해서는 국내체류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체류자들,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들 등을 포함한다. 이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는 30분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를 하고 해당 내용들은 다시 문서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모집단을 사실상 특정화 할 수 없으며 연구주제의 성격상 인터뷰 대상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 샘플과 눈덩이 샘플 추출 방식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에서 2016년 8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를 위하여 경기 수원 및 안산 지역과 부산 기장 등의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동시에 서울 지역에서 연구대상자를 접촉하여 인터뷰 하였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 중인 20대 여학생 3명과 남학생 1명이다. 인도네시아 체류자는 국내 공단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2인과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1명이다.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는 2명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 3명과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한국인 1명을 포함한다. 인도네시아인, 한국인 배우자, 인도네시아 체류 한국인 활동가 등 관련 대상들을 타깃으로 설정하여 접촉하고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시각과 견해, 정보 등의 타당성과 신뢰성 체크를 위해 각 인터뷰 대상자들과 내용들을 비교하여 교차체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인터뷰 자료 등을 다시 문헌자료의 내용들과 교차체크 하였다.

II. 인도네시아 이슬람, 이슬람 극단주의

1. 이슬람의 일반적 특성

수니 무슬림이 절대 다수인 인도네시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특성을 먼저 짚고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일반적인 사회들과는 달리 무슬림 사회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특성이 매우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슬람의 특성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자세히 논의하지는 않는다. 이미 여러 다른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서 이슬람과 이슬람 살라피 극단주의에 대한 논의들은 이루어졌었다.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그러한 선행 자료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연구주제에 맞게 단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슬람의 특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슬람은 기독교나, 가톨릭, 불교 등과 같은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슬람의 경우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세속적인 부문들로부터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슬람은 이러한 구분을 원칙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한다. 이슬람에서는 종교부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세속부문들을 압도하는 보다 초월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슬람의 최고권위인 꾸란과 무하마드의 생전 언행을

기록한 것이라 여겨지는 순나는 종교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모든 행위들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근본원칙이 된다. 이를 샤리아 법이라 부르는데 이 샤리아 법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공공행위, 사적 행위와 믿음 등에 적용되는 최고 권위가 되며 헌법보다도 상위에 위치하는 가장 최상위의 법적 근거와 원칙으로 기능한다(Ibrahim, 2007).

이슬람의 이러한 율법적 특성은 무슬림들의 세속적인 일상을 통제하는 하나의 중요한 통제장치로 기능하도록 만든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습과 문화, 법률과 헌법 등보다도 이슬람 율법을 상위의 행위와 판단기준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꾸란이나 순나, 그리고 이를 해석한 종교지도자인 이맘들의 해석 등을 재해석이나 수정 없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요구된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도둑질은 오른손을 절단함으로써 처벌한다거나, 남자는 그의 아내가 불순종할 경우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여자는 운전을 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것들이 실제로 실천해야 하는 종교적 율법이자 동시에 세속적 일상의 법률로서 강제된다(Ibrahim, 2007).

이슬람의 율법은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는 신인 알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슬림이 어디에 위치하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한국에 있건, 인도네시아에 있건, 아니면 독일에 있건 이 무슬림이 따르고 복종해야 하는 궁극적 율법은 이슬람이 된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세속적인 법들은 이 이슬람 율법보다 열등한 지위를 가진다. 또한 이슬람 율법은 시간에 따른 변화와 다른 해석, 수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성경과는 달리 꾸란은 아랍어 원본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번역본은 꾸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에서 나타난다. 이는 말하자면 7세기 이진, 12세기 이진, 21세기 이진 관계없이 이슬람 율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7세기 경에 기록된 꾸란과 순나는 글자 그대로 21세기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예외나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21세기적 환경에 적용하기 애매모호하거나 달리 적용할 직접적인 구절이 없다면 종교지도자인 샤리아 회의나 이맘들의 해석이나 판례 등에 따라 적용된다(인도네시아 무슬림 학생과의 인터뷰 자료).

이슬람은 배타적이며 비타협적인 정치적 실체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나 가톨릭, 불교 등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적 실체가 아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려는 속성만을 가진다. 이 전파과정에서 이러한 종교들은 선교의

대상에게 자율성을 허락한다. 전파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특정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선택권을 가진다. 이들 종교들은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선교의 대상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슬람은 국가권력으로 대표되는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폭력적인 위협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는 정치적 속성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선교의 대상인 개인은 이슬람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자율성이 없다. 이슬람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경제적, 신체적, 형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윤민우, 2015). 때문에 이는 정치적으로 강요되는 강제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성격 때문에 이슬람은 사실상 공산주의에 가깝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정치권력을 추구하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특정 개인에게 공산주의적 인간이 되도록 강요되어진다. 이슬람과 공산주의의 공통점인 이러한 정치적 실체는 그러한 믿음들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개인들에게 강요되어진다는 점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며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실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슬람은 끊임없는 확장성을 추구한다. 이슬람의 궁극적 목표는 전 세계를 이슬람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알카에다나 IS와 같은 이슬람 살라피 극단주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HT(Hizb ut-Tahrir)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슬람 국가의 정부, MWL(Muslim World League), 국제 이슬람 구호기구(International Islamic Relief Organization)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평화적인 민간기구나 조직, 정부들도 이슬람의 전 세계로의 확산이라는 목표는 공유한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과 이들 평화적 이슬람 단체나 정부들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은밀히 또는 정서적으로는 서로 상당히 끈끈한 연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단적으로 국제 이슬람 구호기구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등이 매우 은밀하고 난해한 방식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세력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극단주의자들의 세력 확장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사례 등에서 찾아질 수 있다(윤민우, 2015).

이슬람의 확장성은 이슬람이 가지는 독특한 세계관에서 기인한다. 이슬람은 세계를 전쟁의 집(Dar al Harb)과 평화의 집(Dar es Salam)으로 이분한다. 여기서 평화의 집은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이 통치하는 이슬람의 땅이며 전쟁의 집은 샤리아 율법이 아직 미치지 않는 이교도의 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전쟁의 집은 성전인 지하드가 진행되는 공간이며 정복해야할 확장의 대상이 된다. 한편 지하드는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 이교도의 공격에 맞서 이 평화의 집을 지키는 것을 방어적 지하드로 전쟁의 집으로 평화의 집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공세적 지하드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집은 한국과 미국, 독일과 같은 이교도의 정치와 문화, 법률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들을 말하며 평화의 집은 사우디아라비아나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이 샤리아 율법과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다 개인적으로는 평화의 집은 무슬림 가정 또는 무슬림 개인의 내적 믿음과 생활양식이 될 수도 있으며 전쟁의 집은 이 무슬림 가정을 둘러싼 이교도의 지역 공동체나 이웃, 그리고 무슬림 개인을 둘러싼 주위의 이교도들이 해당될 수도 있다(윤민우, 2015).

지하드는 반드시 테러나 전쟁과 같은 폭력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테러나 전쟁 등의 폭력적 수단이 정당하게 교리에 포함되며 또한 권장된다. 이러한 속성은 매우 교묘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 예를 들면 이슬람 극단주의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이슬람에서 예기하는 지하드는 무슬림 등이 일평생 종교생활 전반에 걸쳐 닦아야 할 일종의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내용들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핵심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지하드는 대지하드와 소지하드로 나뉜다. 대지하드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한 종교생활 전반에 걸쳐 6신 6행의 철저한 이행 등 일상생활에서 종교성, 즉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지하드를 의미한다. 즉 간단히 말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건성 실천과 같은 평화적인 지하드를 의미한다. 반면 소지하드는 부득이 이슬람의 이해를 침해당했을 때 동원하는 물리적 폭력적 방법의 지하드를 의미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지하드가 비록 평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지하드 역시 이슬람의 경전 꾸란과 선지자의 언행록 하디스에서 정당하고 이슬람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폭력사용은 언제든 지하드를 위해서라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지하드라는 평화적 지하드가 좌절되거나 방해될 때는 부득이 이슬람의 이해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슬림 개인의 판단이나 이맘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게 된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슬람은 이슬람을 위한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 수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독특한 정치적 성격의 종교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폭력적 지하드 수행의 조건은 방어적 성격뿐만 아니라 공격적 성격에도 동시에 적용되어질 수 있게 된다(김요셉, 2016).

결국 이슬람의 확장성과 독특한 세계관, 그리고 지하드에 내제된 폭력적 속성은 서로 결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슬람의 세력을 전세계로 확장해나가는 이슬람의 특성을 만들어낸다. 흔히 기독교의 선교와 비교하여 이슬람의 교세확장을 유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본질적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해이다. 양자는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다. 이는 각기 다른 인식체계에서 비롯된다(윤민우, 2015). 기독교의 선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땅 끝까지 전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에 따라 종교를 전달하는 것이며 여기서 전달 받는 자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즉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인 불이익을 대가로 강요되지 않는다. 또한 이 선교과정에서 기독교는 해당 선교지역의 정치권력에 대한 장악이라는 목적이 없다. 하지만 이슬람의 세력 확장은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닌 이슬람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억압과 폭력을 동반한다. 이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1단계로 이슬람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 2단계로 이교도세를 부과하는 등의 억압적 강요수단을 동원하며 다시 이를 거부할 시에 궁극적으로 침공과 테러와 같은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또한 저항하는 이교도를 사살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또한 이슬람의 확장에서 정치적 권력에 대한 추구와 국가권력 장악은 핵심적이다(Schweitzer, 2002). 이는 이슬람이 궁극적으로 율법종교이며 그 율법의 집행이 국가권력인 샤리아 정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슬람 정체의 건설과 확장은 평화적 수단과 폭력적 수단을 구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총체적으로 수행된다. 이슬람의 확장과 이슬람 정체의 건설은 성기와 혀와 총으로 이룩된다. 총은 테러리즘과 정복전쟁으로, 혀는 이슬람의 가르침의 전파로, 그리고 성기는 이교도들과의 결혼과 많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이슬람 인구를 증가시킴으로서 정복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독일과 프랑스와 미국으로 이주한 이슬람 난민들은 언젠가는 그들의 인구가 원주민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믿으며 결국 자신들의 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에게는 이주와 결혼과 출산 역시 지하드 즉 성전의 일부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평화적이다(인도네시아 국내체류자와의 인터뷰 자료).

Hammond는 이슬람이 한 사회에 진출하면서 얼마나 단계별로 전략적 전술적으로 접근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가 대체로 5% 이하일 경우에는 평화적인 교세확산에 주력하고 소수자로서의 동등한 권리의 요구와 권리의 확장 등을 주장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비무슬림 인권단체나 진보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한다. 하지만 무슬림 인구가 20%를 돌파하게 되면서부터 폭력적인 극단주의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며 극단주의 테러세력이 등장하고 테러공격과 비무슬림들에 대한 폭력적 공격과 소요사태나 반달리즘 등이 증가하게 된다. 무슬림 인구가 60%를 넘어 80%에까지 이르게 되면 국가권력에 대한 장악시도가 나타나게 되며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제도적, 합법적으로 비무슬림을 박해하고 샤리아 정체건설을 시도하게 된다. 무슬림인구가 99%에서 100%에 이르면 신정일치체제가 구축되고 무슬림의 평화의 집이 완성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Hammond의 주장은 경험적 검증이 뒤따라야 하는 가설이지만 이슬람의 세력 확장 과정이 전략적이고 조직적이라는 사실을 주시시키며 이슬람 세력 확장에 대해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김요셉, 2016: 51-52).

무슬림의 개종은 매우 드물며 상당히 어렵다. 이는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이슬람의 특성이다(인도네시아주재 한국인 선교사와의 인터뷰 자료). 이슬람의 이러한 특성은 마피아 조직원의 탈퇴가 매우 어려운 것과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한다. 마피아 조직원의 탈퇴를 막는 두 가지 기제는 공포와 연대감이다. 즉, 조직의 탈퇴나 배신의 경우 죽음과 같은 매우 폭력적인 처벌이 기다리게 된다는 공포이다. 또한 조직의 탈퇴나 배신은 동료 조직원이나 범죄자들과의 정서적 연대감이 끊어지게 된다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대부분 마피아 조직은 이탈리아인이라는 공통된 문화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거나 가족구성원 대부분이 범죄 사업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온전히 계약으로 맺어진 2차 집단을 이탈할 때는 수반되지 않는 정서적 연대감의 끊어짐을 경험해야 한다. 무슬림 역시 공포감과 정서적 연대감의 상실이라는 이중의 장치에 의해 통제된다. 이슬람 율법은 이슬람의 개종자는 무나픽 즉 이슬람의 배신자로 규정하며 처형되어야 할 대상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율법적 정의의 심리적 효력은 상당하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개종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죽음이나 신체적 상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매우 실질적이며 상당한 공포라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대가족 또는 부족 사회의 한 일원으로 존재한다. 이들에게 가족과 씨족, 부족이라는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자신들의 개인적 개종은 자신의 정서적, 혈연적 공동체인 모두가 무슬림인 가족과 친척, 부족 이웃들 모두와의 정서적 연대를 포기해야 한다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한 인도네시아 기독교 개종자 커플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완전히 결별해야 했으며 고향마

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대도시인 자카르타로 이사해야 했다고 했다(인도네시아 주재 한국인 선교사와의 인터뷰 자료).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국적, 인종, 문화의 차이의 구분 없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될 여지가 크다. 물론 이러한 속성은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된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이러한 강조가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며 현실적으로는 국적, 인종, 문화 등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 형성이 쉽지 않은 반면에 이슬람은 이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는 이슬람에서 이러한 국적, 문화, 인종 등에 의한 구분을 고리적으로 이단시하기 때문이다.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는 하나이며 움마 안에서 모든 무슬림은 하나이며 국적, 인종, 문화 등에 따른 구분은 본질적으로 이단적인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우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국적과 인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하기가 상대적으로 보다 쉬워지게 된다 (Schweitzer, 2002). 이러한 이슬람의 특성은 실제적으로 국적과 인종, 문화적 배경이 다른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영향이 다른 지역과 인종, 문화를 대상으로 침투하거나 다양한 국적과 인종, 문화적 배경의 극단주의자들의 연대를 촉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아랍계열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인도네시아 등지에 개입하여 근본주의를 확산시키거나 사우디나 파키스탄 계열의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이나 유럽, 한국 등의 이민사회에서 다른 국적과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무슬림들을 상대로 세력을 확산시키거나 조직화하기 우호적인 조건들이 된다.

이슬람을 알카에다와 IS 등의 이슬람 살라피 극단주의와 구분 짓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생각보다 복잡하며 엉켜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은 살라피 극단주의와 다르다. 하지만 살라피 극단주의는 이슬람의 하나의 흐름이다. 또한 이슬람은 IS와 같은 구체적인 테러세력을 반대하지만 동시에 이슬람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력의 확산에는 동의할 수 있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경건주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에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지원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되어지지 않으며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예를 들면 한 이슬람 단체에서 IS의 폭탄테러를 규탄하고 IS 세력을 반대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이 단체가 IS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인 이슬람의 세력 확산과 이슬람 정체의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를 반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IS의 궁극적 목표에는 찬성할 수 있고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터키 에르도간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IS에 대한 테러

반대와 이슬람 세력의 확산에 대한 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극단주의 테러세력과 구분된다고 믿어지는 이른바 평화적인 이슬람 단체나 세력들의 진의를 해석하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른바 “하얀 거짓말”의 논리이다. 이슬람의 율법은 “하얀 거짓말”은 이슬람의 세력 확산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정당화 된다고 규정한다. 이 “하얀 거짓말”은 이교도들에 대한 것이며 이교도들에 대한 거짓말과 기만은 언제나 정당하고 이슬람 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슬람들에게 부여되는 정직의 의무는 단지 동료 무슬림들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이는 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에 해당하며 지하드나 이슬람의 세력 확장과 수호와 같은 목적이 정당하다면 이러한 수단은 언제나 정당화된다. 때문에 무슬림은 자신이 무슬림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혐오하거나 반대한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고 주장하는 것 등이 “하얀 거짓말”에 해당된다면 언제나 정당화된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슬람의 세력 확산을 위해 기독교로 거짓 개종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하거나 개종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교도 배우자와 결혼하거나 테러단체를 지원하면서 그 단체에 반대하며 테러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지하드를 위해서라면 술을 먹거나 금지된 음식을 먹거나 이교도의 복장을 하거나, 이슬람 의식을 지키지 않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 역시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심지어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는 자살 역시 이교도를 공격하기 위한 자살폭탄테러인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미약거래나 인신 매매, 매춘 등 여러 범죄 행위 역시도 지하드를 목적으로 한다면 받아들여진다(국내 체류 인도네시아인과의 인터뷰 자료).

이슬람 살라피 극단주의 경향은 모스크나 무쌀라라고 불리는 기도처를 자주 다닐수록, 꾸란 등 경전에 대한 학습이 심화될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화 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많은 일반적인 무슬림들은 출생과 동시에 무슬림이 된다. 자신들의 부모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스로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금요일예배에 참가하지 않거나 무슬림으로서의 의식을 행하지 않거나 음주 등의 이슬람에서 금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대체로 꾸란을 읽어 본적이 없거나 이슬람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시골로 갈수록 심해진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교육 수준이 높고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조직화되고 이슬람 의식에 참여하는 정도가 증가할수록 이슬

람에 대한 정체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최근 이집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 경험연구에서 조직화와 이슬람 의식과 모임에의 참여도가 증가할수록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윤민우, 2015).

많은 경우 이슬람은 본질적으로 권위적이며 가부장적인 가족 공동체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제3세계 국가출신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율법에서 가족 내 아버지이자 남편인 남자의 권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정의 가족 내 권한과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문에서 부인인 여자에 대한 통제와 물리적 처벌의 권한까지도 가지며 동시에 자녀에 대한 통제권과 물리적 처벌권도 동시에 인정된다. 이러한 가정의 절대적 권위는 그 해당 가족이 거주하는 국가나 사회의 일반적 법규범이나 도덕규범, 상식 등을 뛰어넘으며 이 때문에 종종 주류사회의 법규범이나 도덕 감정과 충돌하는 “명예살인”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Berko & Yuval, 2007).

2.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일반 현황

인도네시아는 잘 알려진 것처럼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다. 약 2억 5천만 명의 인구가운데 87% 정도가 무슬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약 2억 1천에서 2천만 명의 인구가 무슬림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는 달리 이슬람을 배타적인 국가종교로 지정하지 않으며 다양한 종교를 인정한다. 이슬람이외에도 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교, 유교 등을 6대 종교로 헌법에 명시하여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슬람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이외의 다른 소수 종교들은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는 달리 합법성과 상대적인 자율성을 인정받는다. 기타 종교들 가운데는 기독교가 6-8%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한다. 대체로 인구의 4천 5백만 정도가 크리스천인 것으로 간주된다(인도네시아 주재 한국인 선교사와의 인터뷰 자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파키스탄 등의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는 달리 종교적 지향성이 느슨한 편이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먼저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속

주의 무슬림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세속주의 무슬림들은 무슬림이라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다른 비 무슬림에 대해 관용적이며 종교적인 교리나 경건성, 실천 등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며 도시화된 현대적인 삶의 양식과 경제적 풍요로움 등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세속화 경향은 최근 들어 일반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인도네시아 체류 한국인과의 인터뷰 자료). 한 인터뷰 대상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본국에서는 지난 20년간 무슬림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도 이와 관련이 있다. 90% 정도에서 최근 들어 80% 정도로 줄어들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경향은 자카르타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인터뷰 자료). 한편 다른 인터뷰 대상자의 증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오히려 기독교인이 많게는 20% 정도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 의미는 있을 것이다(인터뷰 자료). 하지만 공식적인 기독교도의 통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6-8% 정도로 집계된다. 이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사회세력인 무슬림 세력 등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한 통계수치를 유지한다고 한다. 어쨌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지난 20년 동안 한류 등의 글로벌 문화와 비즈니스의 유입으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속주의 경향이 강화되어 온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인도네시아 주재 한국인 선교사와의 인터뷰 자료).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주로 지방의 시골지역에서 나타나는 토속신앙과의 결합이다. 수 천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많은 지방의 시골지역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귀신과 같은 미신들을 믿는 인구들이 많으며 토속적인 주술과 결합되어 있는 혼합적인 형태의 무슬림들이다. 이 때문에 이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아랍등지의 무슬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과거 2001년 보르네오섬 중부 칼리만탄주의 종족 간 분쟁과 대량살육이 있었을 때, 마두라 종족과 다약 간에 서로 목을 따고,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유혈충돌과 인육섭취를 이들 지역민들은 귀신에 씌어 발생한 것으로 그리고 종족간의 충돌을 귀신들 간의 충돌로 이해했다. 한 한국인 체류 교민은 인도네시아를 귀신이 많은 지역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이슬람과 토착 주술 신앙과의 결합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 극단주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이슬람과 주술적 토착신앙이 결합된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들어 이슬람 살라피 극단주의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침투해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의 중앙아시아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지의 무슬림들이 비교적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집트 등과는 달리 온건한 무슬림들이었던 이유는 이들 지역의 이슬람이 토착신앙과 상당부분 혼합되어 있었던 측면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인도네시아 주재 한국인 선교사와의 인터뷰 자료).

3. 인도네시아 이슬람 근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단계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특성을 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이슬람에 극단주의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근본주의 또는 극단주의는 특히 서부 자바지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식민지 기간에 그 맹아적 형태가 표출되었다(김형준, 2009). 흥미로운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의 발전 궤적이 이집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위구르 등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이다(윤민우, 2012; 윤민우, 2015). 그러한 패턴은 단계별로 다음의 그림 1에서 정리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서구 식민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하나로 이슬람 근본주의 또는 극단주의적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집트의 하산 알 반나와 무슬림 형제단 운동은 이러한 형태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서구 식민지배 세력이 철수한 이후 토착 근대국가가 독립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대체로 자본주의, 민족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같은 서구식 모델에 기초한 세력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면서 미국 또는 소련을 모델로 한 서구식 근대국가를 건설하게 된다. 여기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합법적 정치지형의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며, 대체로 국가권력에 의해 탄압받거나 처벌받게 된다. 3단계에서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진행된 대소련 무자히딘 전쟁과 관련이 있다. 자국 내에서 억눌려 있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자국을 떠나 이 아프간 지하드에 자원참전하게 된다. 여기서 이들은 군사전술에 대한 노하우와 전쟁경험, 무기사용 능력 등을 습득하게 되며 자신과 처지가 유사한 다른 국가들에서 온 무자히딘들과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게 된다. 4단계는 아프간 전쟁의 종료와 함께 나타나는데 이들 무자히딘들은 전쟁 경험과 군사전술 지식과 무기사용 능력 등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동시에 이들의 이슬람 극단주의 정체성은 강화되며

자신들을 글로벌 지하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게 된다. 귀국 후 이들은 본국 내에서 본격적인 살라피 극단주의 테러조직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극단주의 조직을 본격적인 테러조직으로 변모시키게 된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가장 최근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 알카에다나 IS 등의 초국가적 극단주의 세력의 적극적인 침투, 확산, 연대 전략과 맞물리면서 지역 조직들이 이들 해외 극단주의 지휘부의 자매 조직이 되거나 아니면 연대조직으로 변모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지하드의 한 지부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조직들이 알 카에다나 IS 등에 충성맹세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민지 상황에서 서구 식민세력에 대한 독립운동의 한 형태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이후에 서구식 근대국가 수립과정에서 정치지형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탄압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가니스탄 대소련 무자히딘 성전에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자원참전하여 다른 무슬림들과 국경을 초월하여 연대가 형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여 본국에서의 전투적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주축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카에다와 IS 등 초국가적 극단주의 테러세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함

[그림 1] 인도네시아 이슬람 근본주의의 역사적 발전단계

1단계에 해당하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 인도네시아의 급진적 이슬람의 맹아적 형태는 기독교 세력인 식민정부에 대한 집단운동을 주도하면서 나타났다. 이들은 보잘 것 없는 물리력으로 네덜란드 군대에 대항하였으며 천년왕국 운동적 성격을 띠었다.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갖는 이슬람 지도자들이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개인의 종교적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띠었으며, 이슬람과 토착종교가 혼재되어 있었고 이념체계가 부재했으며, 그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김형준, 2009: 58).

2단계에서는 급진주의적 흐름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슬람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여 전개된 분리주의 무장투쟁 ‘다룰 이슬람(Darul Islam(DI): 이슬람의 집, 영토) 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DI는 꾸란과 하디스에 입각한 이슬람 헌법을 주장하고, 서부 자바 대다수 지역에 행정 체계를 구축하며 10여년 이상 정부군과 대립하였다(김형준, 2009: 59). 이 DI의 주장은 이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세속 분야를 압도하여야 한다는 오늘날의 이슬람 살라피 극단주의의 주장과 핵심적인 면을 공유한다. 이 초기 근본주의 운동은 60년대 초 수하르트 정권에 의해 진압되었다. 하지만 이 토착적 근본주의의 싹은 수하르트 독재정권의 억압에 의해 수면 아래로 잠복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영향력은 은밀히 지속되었으며 확대되었다(김형준, 2009: 59).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역시 3단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여준다. 아프간의 대 소련 무자히딘 전쟁은 이슬람권 전역에 공감과 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많은 이슬람권의 젊은이들이 무자히딘 전쟁에 참전하였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무슬림들 역시 이러한 무자히딘 전쟁에 자원 참전하게 된다. 대소련 무자히딘 전쟁에서 인도네시아 자원 무자히딘들은 아랍국가 출신들과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과 함께 주요한 무자히딘 송출 국가에 포함되었다(Hegghammer, 2010: 53-94). 이들은 아프간의 경험을 통해 테러와 전투기술, 전쟁경험, 무기사용 경험, 테러역량 등을 축적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네트워크에 결합되게 된다. 이들은 전쟁 후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이후 본국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확산과 강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Amir Mahmum과 같은 아프간에서 훈련받은 전직 무자히딘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국으로 귀국 후 그는 본국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Fabi & Kapoor, 2016).

4단계에서는 아프간 전직 무자히딘들의 귀국과 이들과 함께 팔려들어 온 글로벌 이슬람 살라피 극단주의에 영향을 받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이 여기저기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극단주의 조직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2002년 발리 폭탄테러를 주도했던 제마 이슬라미야(JI: Jemaah Islamiyah)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는 1989년 이후로 1990년대를 거치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성장의 주요한 우호적인 조건을 맞게 되는데 억압적이었던 수하르트 정권의 붕괴는 아프간 전쟁 경험자들의 귀국과 맞물리게 된다. 대 소련 무자히딘

전쟁 중 파병을 주도한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은 국내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역량을 축적시킬 수 있었다. 지원병을 충원, 교육, 파견할 조직적 힘, 파병을 뒷받침할 재정적 자원 모집, 파견을 매개로 형성된 구성원간의 연대감, 무력투쟁을 정당화할 이념적 기반, 군사적 경험, 국제적 수준의 활동을 뒷받침할 네트워크 형성 등은 인도네시아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들이 습득할 수 있었던 자산이었다(김형준, 2009: 71). 동시에 수하르토 정권의 퇴진으로 형성된 관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회분위기는 이들 근본주의자들이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이들 근본주의자들이 독재정권의 피해자이자 반 수하르토 정치세력으로 대중에게 비취짐으로서, 당시 반 수하르토적인 분위기에서는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들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공격은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기독교와 교회 등을 대상으로 폭탄테러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테러공격의 정점이 2002년 제마 이슬라미야에 의해 감행된 발리폭탄테러에서 나타난다. 이 시기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테러조직이었던 제마 이슬라미야는 알 카에다와 연대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 살라피 극단주의의 주장과 공통된 수니 살라피 극단주의 운동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Magourik, Atran, & Sageman, 2008).

2001년 9.11 테러와 미국과 다국적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리고 이어지는 2002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는 5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 5단계에서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가 인도네시아의 국내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알카에다나 IS 등이 주도하는 글로벌 지하드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고 이 글로벌 지하드의 핵심세력과 연대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이슬람 테러조직인 제마 이슬라미야의 경우 이 시기 알 카에다 등과 연대되어 있었으며 9.11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맞서 알 카에다의 원거리 적 타격전략에 발맞추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의 미국과 서방 목표물들에 공격의 관심을 옮겼다(Carnegie, 2013: 14-25).

4. 인도네시아 이슬람 근본주의의 최근동향과 실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의 최근 동향과 실태는 5단계시기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 5단계시기를 다시 두 개의 세부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대체로 전기는 2000년대로 후기는 2011-12년 이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전기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제마 이슬라미야가 주도하던 시기이다. 전기의 제마 이슬라미야 중심의 시기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테러 공세로 제마 이슬라미야가 2000년대 중, 후반이후로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쇠퇴하게 된다. 알 카에다의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조직에 가까웠던 제마 이슬라미야는 2000년 대 중반 이후로 수백 명의 리더와 추종자들이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제거되었다. 2008년에 전 리더인 자르카쉬(Zarkasih)와 군 사령관인 아부 두자나(Abu Dujana)가 15년 형을 받고 교도소로 보내졌고, 2010년에는 제마 이슬라미야의 아세 지역 네트워크가 꺾멸되면서 60여명의 조직원들이 체포되었다.

한편 후기는 제마 이슬라미야의 쇠퇴와 맞물리면서 IS 계열의 인도네시아 지역조직이 극단주의 테러리즘을 주도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바룬 나임(Bahrin Naim)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따르면 IS의 인도네시아 핵심 코디네이터로 시리아 락카에 근거를 두고 인도네시아 조직들과 IS와의 정교한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인도네시아에 IS가 세력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는 사실은 많은 미디어 보도들과, 보고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BBC, 2016). 인도네시아 극단주의자들과 IS는 여러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자원자들이 시리아 지역에서 IS 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IS의 전사들과 핵심간부들이 인도네시아로 스며들어 역내에서의 세력 확산을 시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 IS를 추종하는 조직이나 추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2>는 인도네시아 IS 지지자들이 배포한 안드로이드 기기를 위한 게임의 사례이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은 사이버 공간을 적극적으로 테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윤민우, 2014; 윤민우·김은영, 2012).



※ 출처 : Jihadist News (2016)

[그림 2] 인도네시아 IS 지지자들이 만들어 배포한 Captain IS 게임

인도네시아 IS지지 세력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대략 30여개 이상의 인도네시아 조직들이 IS에 충성을 맹세하였으며 일부는 동남아시아에 IS 지방(IS Province)을 수립하겠다는 야심을 표명하였다. 지난 2016년 1월 자카르타 테러공격은 이러한 인도네시아로 확산된 IS가 주도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8명이 죽고 23명이 부상을 당한 이 사건은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Jihadist News, 2016)

인도네시아 내의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은 인터뷰를 수행한 대상자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인도네시아 최대 테러범인 IS와 연계된 산또소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인도네시아내 이슬람 극단주의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해외에서 살라피스트들이 인도네시아내로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술라웨시 지역의 뽀소에서 기독교인들을 대량살인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인터뷰 자료). 다른 인터뷰 대상자는 인도네시아 본국에서 극단주의자들은 약 인구의 5%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인터뷰 자료).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12,500,000정도의 인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이 보다 적을 수도 있으나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으며 세속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지방의 시골지역에서는 이러한 극단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바지역과 술라웨시, 말루쿠, 아체 등지의 시골지역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시골지역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세력을 확장하는 이유는 이들 지역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과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구이동 정책 때문에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종교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주로 아랍 등지로부터 유입되는 이슬람 자금들이 이러한 시골지역들에 투입되면서 코란만을 교육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학교들이 들어서는 것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와 지방 시골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는 매우 큰데 이러한 차이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인도네시아 주재 한국인 선교사와의 인터뷰 자료).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토대는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세력을 확장하며 동시에 자국 내 테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테러 공격의 가능성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인들은 평소에 유순하고 비폭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서방이나 기독교, 또는 잘사는 국가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적대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 식민지배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서방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로부터의 경험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기독교와 서방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근본주의가 반기독교 정서를 강하게 깔게 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된다. 또한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중국계 화교가 경제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인도네시아인들의 외국인 혐오와 관련이 있다. 1998년 수하르토 정권하에서의 화교 학살사건은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잠재된 분노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2000년대 중, 후반 이후로 인도네시아가 계속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분노도 이러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잠재된 외국인 혐오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인도네시아 주재 한국인 선교사와의 인터뷰 자료). 인도네시아 인들은 일반적으로 온순하고 비폭력적이라고 평가 받고 있지만 한 인도네시아 인터뷰 대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들은 종족 등과 같은 집단 의식에 강하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격발점이 있으면 빠르게 집단적 폭력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한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척, 종족 등의 집단과 연결된 한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다른 집단의 구성원에게 닥친 일을 자신의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며 이 때문에 다른 집단 구성원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연대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폭동과 같은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이슬람 근본주의가 빠르게 집단속으로 파고들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국내체류 인도네시아인과의 인터뷰 자료).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인은 외국인 혐오와 적대감의 대상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한국은 네덜란드와 유사하게 서방 기독교 국가로서 인식되어 질 소지가 있다.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가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한 인기와 호응을 얻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한국의 문화는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인들이 보기에는 또 다른 서방 문화의 침투이자 비 이슬람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여기에 기독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로 한국이 비춰지고 있는 현실은 한국이 기독교를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침투시키고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국내체류 인도네시아인과의 인터뷰 자

료). 비록 인도네시아는 아니지만 이웃한 동남아시아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아이돌 멤버가 히잡을 쓴 무슬림 소녀팬들과 손을 잡고, 포옹하고, 이마에 입을 맞춘 것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소녀들은 체포될 위기에 처했으며, 많은 무슬림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소녀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고, K-POP을 좋아하는 무슬림 여성들은 종교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비난하는 풍자만화가 지지를 받았으며, 한 이슬람 단체는 이러한 행위들을 기독교 의식이라고 비난했다(경향신문, 2015). 이러한 사례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이 반 이슬람적인 대상으로 비취질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한국은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착취하는 잘사는 국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외국인에 대한 분노가 치명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이 1998년 폭동에서 증명되었다. 2002년 발리 폭탄테러 역시 이러한 유형의 외국인에 대한 분노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주들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을 떼어먹거나 이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한국인에 대한 분노와 반감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한편 한국 남자들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처를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국남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현지처와 현지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노동을 하다가 인도네시아로 돌아 온 인도네시아 인들로부터 한국인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임금착취와 학대, 모욕 등 매우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다수 있는데 특히 어선에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인들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 이들이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이후에 또는 이들의 경험을 전해들은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분노와 반감 등이 생겨나고 확산될 수 있다(인도네시아 주재 한국인 선교사와의 인터뷰 자료). 이런 사정은 인도네시아 해사수산부(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장관이 인도네시아 주재 뉴질랜드 대사에게 요청한 정책 발표에 잘 나타난다. 이 장관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한국 어선들에 승선하여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노예노동의 희생자들과고 말했다(The Jakarta Post, 2016).

요약하면 인도네시아의 뿌리 깊은 이슬람 극단주의의 전통과 최근 IS 세력의 인도네시아 내 확산, 인도네시아의 잠재된 외국인과 기독교, 서방세계 등에 대한 반감,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경험에서 생겨난 한국인에 대한 반감과 분노 등이 서

로 상호작용하여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의 공격대상이 한국과 한국인에게 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IS의 동아시아로의 세력 확산 노력과 K-POP 등 한국문화의 인도네시아 내 확산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국내유입의 증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의 증가 등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노출이 증가하면서 더욱 그러한 위험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본국에서의 이러한 상황전개는 분명히 국내에 유입된 인도네시아인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내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확산시키고 한국을 테러 공격할 수도 있는 개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Ⅲ. 논의

지난 2015년 11월 18일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연계단체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혐의로 체포된 카심 또는 압둘라 하심의 사건은 우리사회에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은 이 사건이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인도네시아 무슬림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이슬람 극단주의 움직임의 한 전조인가 하는 것이다. IS, 알카에다 등의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역내 극단주의 확산의 전진기지로 지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로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침투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연장선상에서 압둘라 하심의 최근 사건은 인도네시아와 연계된 국내로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침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실태와 동향에 대한 이해는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된다.

카심 사건의 사건판례와 관련 기사 등을 종합하여 사건의 정황을 분석해 보면 카심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최근 들어 자주 목격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고무된 자생적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 케이스의 경우 피의자인 카심이 2007년 10월 22일 애초에 한국에 입국할 시에 이슬람 극단주의의 전파, 확산이라는 임무를 띠고 온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순수히 국내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온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국내 체류기간 동안 어떤 루트와 동기인지 파악은 되지 않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관심이 점차 발전되어 온 듯하다. 알 누스라 전선 조직원들과 채팅으로 연락 후 가담 한 것으로 파악된 시기는 2014년 6월경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제 해외의 테러조직원과 접촉하여 가입하게 되기까지 극단화 과정이 약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2011-12년경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관심과 접촉시도, 접촉빈도수의 증가라는 극단화 과정이 시작되어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후 2015년 4월에 북한산에서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드는 영상을 촬영하고 페이스북 북에 업로드하며 “알라 외에 신은 없다.” “무하마드는 선지자이다.”라고 선언하였으며 다시 2015년 10월에 경북궁 배경으로 알 누스라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며 자신을 알 누스라 전선병이라고 소개하는 행위 등을 두 차례나 한 것은 그 동안 내제되어 온 이슬람 극단주의 지향성이 공개적으로 행동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1차 시도에서 북한산이라는 상대적으로 공공의 눈에 덜 띄는 곳에서 영상을 촬영한데 반해 2차 시도에서는 경북궁이라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서울 또는 한국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상징성을 가진 공공에 매우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 영상촬영 행동을 했다는 점은 좀 더 대담한 상태로 진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쇄성 범죄자들이 범죄를 거듭할수록 대담해지는 것과 유사한 경향성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연쇄성 범죄자들이 범죄시도 횟수가 3-4회를 넘어갈 경우에 보다 더 정교해지고, 대담해지며, 전략적이 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카심의 경우는 만약 경찰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좀 더 대담한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다. 한편 2015년 6월-10월 겨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7cm 보위 나이프(일명 람보칼)와 M4A1 소총을 모방한 모의총포를 구입했다는 사실은 이 피의자가 폭력사용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모의 소총을 구입했다는 것은 국내에 총기 규제가 엄격히 통제되어 실제 총기의 구입이 어려운 점 때문에 대안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전사로서의 환타지가 내면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15년 11월 주거지에서 이 무기들과 함께 지하드 깃발,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8권, 타인명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 피의자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상당히 심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고단한 일과와 낮은 학력수준 때문에 이슬람 서적 등을 읽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실은 이슬람 원리주의 학습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추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징후들과 특징들은 독일 현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예방민간단체의 상담사가 알려준 사례와 유사하다(독일 이슬람 이민자 지원 단체 상담사와의 인터뷰 자료). 이 독일 사례에서도 역시 이슬람 극단주의에 심취되어 시리아 현지의 IS에 자원입대하거나 독일 현지에서 자생테러를 결심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에게서 카심의 사례와 유사한 위기 징후나 특징들이 나타났다. 때문에 카심의 사건은 국내 체류 인도네시아 무슬림 가운데서 나타난 어떤 전형적인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리즘의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극단주의에 대한 내면화가 축적되면 이 피의자는 시리아 현지에 자원참전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구체적인 폭력적 행동으로 발전했을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2015년 10월경에 카심은 2016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 후 순교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실로 나타났을 개연성이 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내 체류 노동자 사이에서 또 발생할지 알 수는 없지만 향후 유사 사례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자생적 극단주의 발생 가능성과 별개로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과 심화가 우려된다.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내에서 무슬림 공동체가 점차 배타적으로 격리되고 모스크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상황과 극단주의 성향의 이맘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상황들은 독일 등 유럽에서 전형적으로 무슬림 이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확산되었던 패턴과 유사하다.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서로 자원봉사활동이나 국내 인도네시아 이슬람 공동체와 같은 조직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또한 유학생과 이주노동자라는 서로 다른 집단이 서로 소통하도록 하며 이는 이슬람 극단주의가 서로 전파되거나 이주노동자들의 차별과 소외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한 자각과 한국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서로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연결고리가 적어도 국내 인도네시아 커뮤니티에는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체류 인도네시아인 배우자와의 인터뷰 자료).

이슬람 이주자들과 이슬람 커뮤니티의 국내에서의 세력 확장은 그 자체로 반드시 폭탄테러와 같은 폭력사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슬람 근본주의 확산과 한국의 이슬람화를 촉진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확산되는 주요한 우호적

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등 유럽에서 그대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를 진행한 인도네시아인이 밝힌 것처럼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확산을 성기와, 혀, 그리고 총의 세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하드로 이해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무슬림들은 기독교도 등에 비해 자식을 많이 갖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수가 증가하여 이슬람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독일의 터키 무슬림들과 국내의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국내체류 인도네시아인과의 인터뷰 자료). 국내 체류 인도네시아 커뮤니티를 이해하면서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이 대두되는 것도 주의할 해야 하지만 동시에 보다 은밀히 확산되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세력화 역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보다 은밀히 문화로, 평화적인 종교로 확산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현지로부터 이슬람 근본주의 이맘들이 국내 인도네시아 공동체로 스며들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아직은 인도네시아 공동체가 원리주의자들에게 장악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오랜 이슬람 근본주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최근 들어 IS 등의 해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내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경진압에 의해 인도네시아 극단주의자들이 해외로 도주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가 인도네시아인과 인도네시아 무슬림 사이에 잠재되어 있다는 점 등은 향후 이러한 전망을 하는데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역사와 최근 실태와 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필요에 부응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는 뿌리가 깊고 일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이 이슬람 극단주의가 공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 즉,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슬람 원리주의가 시작되었으며, 독립이후 근대국가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었고 소련-아프간 전쟁을 거치며 극단화 폭력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9.11테러 이후 국제적 이슬람 극단주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글로벌 지하드에 편입되는 발전경로

를 보여준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 궤적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공고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최근 들어 IS와 알카에다 등의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동아시아 확장 전략에 따라 인도네시아로의 침투와 확장이 관찰된다. 이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소외되고 낙후한 시골지역에서 보다 뚜렷이 관찰된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변화는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주요한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2억이 넘는 무슬림 인구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의 핵심적인 인력공급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2억 인구의 0.01% 정도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로 채용되더라도 200만 명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병력이 된다. 더불어 1,000여 개가 넘는 인도네시아의 크고 작은 섬들은 사실상 중앙정부의 공권력이 거의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지역들이 이슬람 테러세력에게 장악되었을 경우 인도네시아는 국제 이슬람 테러세력의 주요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주요한 전진기지가 될 경우 그 위협은 직접적으로 우리 국가에 미치게 될 것이다.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이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는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소지가 크다. 특히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와 이주민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우려는 매우 현실적이다. 앞서 언급한 카심 사건은 그러한 하나의 전조일 수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인도네시아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 나타나는 극단주의 성향의 이맘의 출현과 이슬람을 종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조직화의 심화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의 국내유입을 위한 주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동향에 대한 주의와 관심은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지역별, 종족별 특성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동향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동향과 국내체류 인도네시아 인들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하고 자료를 관리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의 국내로의 이슬람 극단주의 침투의 위협성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5),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아이돌 B1A4 멤버 포획한 무슬림 소녀 ‘체포위기’, 2015년 1월 15일.
- 김요셉 (2016). 이슬람의 진출 앞에 선 대한민국, 수원, 경기: 리버사이드스 북스.
- 김은영·윤민우 (2015). 이집트 청소년들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으로의 급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분석 및 프로파일링, 국가정보연구, 제8권 제2호, 151-188.
- 김정우 (2015). ‘알 누스라 추종’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로 기소, 한국일보, 2015년 12월 14일.
- 김형준 (2009). 인도네시아 이슬람 급진주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이념적·실천적 특성, 동남아시아연구, 제19권 제2호, 57-91.
- 연합뉴스 (2016). IS 또 어린이 자폭테러...극단주의 세뇌교육 실상은, 2016년 8월 22일.
- 윤민우 (2012).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공격에 관한 지리-공간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3호, 261-290.
- 윤민우 (2014). 새로운 안보환경을 둘러싼 사이버 테러의 위협과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제40호, 109-145.
- 윤민우 (2015). 위기협상 커뮤니케이션의 오인식과 거짓말의 문제와 위기협상 역량강화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제42호, 309-334.
- 윤민우 (2015).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의 기원과 전략적 특성, 그리고 최근 동향에 관하여, 대테러 정책 연구 논총. 국가정보원.
- 윤민우 (2015). 위구르 민족문제와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한국경호경비학회, 제45호, 107-127.
- 윤민우·김은영 (2012).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안보,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1호, 157-185.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 (2013). 외국인근로자 취업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 분석자료 2013년 6월.
- BBC News (2016). The Islamic State group's influence in Indonesia, 20 July 2016.
- Berko, A. and Yuval, E., (2007). The path to paradise: The inner world of suicide bombers and their dispatchers. Westport, CT: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 Carnegie, P. J. (2013). Is militant Islamism a busted flush in Indonesia?, Journal of Terrorism Research, 4(2): 14-25.

- Fabi, R. and Kapoor, K. (2016). Indonesia's most-wanted awakens new generation of jihadis, Reuters. August 26, 2016.
- FDI(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 Feature Interview (2016). Counter-terrorism challenges in Indonesia and beyond: Sidney Jones. Independent Strategic Analysis of Australia's Global Interests, 3 May 2016.
- Harson, S. (2015). Indonesia's fighting an uphill battle against IS, December 9, 2015.
- Hegghammer, T. (2010). The rise of muslim foreign fighters, *International Security*, 35(3): 53-94.
- Ibrahim, R. (2007). *The Al Qaeda Reader*, New York: Broadway Books.
- Jihadist News (2016). Indonesian Pro-IS Jihadist releases Android games: Shoot Obama, Captain IS, Go to Syria, SITE Intelligence Group, 5 April, 2016.
- Magouirk, J., Atran, S., and Sageman, M. (2008). Connecting terrorist networks,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31(1): 1-16.
- Schweitzer. G. E. (2002), *A faceless enemy*,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 The Jakarta Post (2016). Susi seeks protection for Indonesian 'slaves' in New Zealand waters, 8 November, 2016.
- Tomsa, D. (2016). The Jakarta terror attack and its implications for Indonesian and regional security, ISEAS Yusof Ishak Institute Perspective Iss.2016, no.5.

【Abstract】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of Islamic extremism in Indonesia

Yun, Min-Woo

The current study described the history of Islamic extremism and the recent expansion of international Islamic extremism in Indonesia. For doing so, both content analysis of the existing written documents and qualitat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he content analysis, media reports and research articles were collected and utilized. For qualitative interviews, Indonesian students and workers in Korea, Korean spouses married to Indonesian, and Korean missionaries in Indonesia were contacted and interviewed. Qualitative interview was conducted between 30 minutes and 2 hours. On the spot,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later transcribed into written documents. Due to the difficulty of identification of population and the uneasiness of accessibility to the study subjects, convenient sampling and snowball sampling were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Islamic extremism in Indonesia had a deep historical root and generally shared similar historical experience with other muslim countries such as Afghanistan, Pakistan, Egypt, and Saudi Arabia where Islamic extremism was deeply rooted in. That is, Islamic extremism began as a reaction to the western imperialism, after independence, Islamic extremism elements were marginalized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of the modern nation-state, and Islamic extremist movement was radicalized and became violent during the Soviet-Afghan War. In addition, after 9.11, Islamic extremism in Indonesia was connected to international Islamic extremism network and integrated into such global movement. Such a historical development of Indonesian Islamic extremism was quite organized and robust. Meanwhile, the eastward infiltr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Islamic extremism such as IS and Al Qaeda was observed in Indonesia. Particularly, such a worrisome expansion was more clearly visible in the marginalized and underdeveloped countrysides in Indonesia. Such expansion in Indonesia could negatively affect on the security of South Korea. Geographically, Indonesia is proximate

to South Korea. This geographical proximity could be a direct security threat to the Korean society, as if Islamic extremism in North Africa and Middle East becomes a direct security threat to Europe. Considering the presence of a large size of Indonesian immigrant workers and communities in South Korea, such a concern is very realistic. The arrest of an Indonesian Islamic extremism supporter in November, 2016, could be a harbinger of the coming trend of Islamic extremism expansion inside South Korea. The Indonesian Islamic community in South Korea could be a passage of Indonesian Islamic extremism into the South Korean society. In this context, it is timely and necessary to pay an attention to the recent trend of Islamic extremism expansion in Indonesia.

Keywords: Terrorism, Terror, Islamic extremism, Indonesia, Migration